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10. 14. / (총 17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현 김 세 은		044-202-1750 044-202-1754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과 장 담 당 자	정 기 현 윤 준 호		042-481-5959 042-481-863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 장 담 당 자	권 도 연 윤 숙 일		044-203-3151 044-203-315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최근 우리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미 중대본에서 해외 건설근로자의 방역 관리대책을 2차례에 걸쳐 마련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재유행 추세와 함께 러시아, 네팔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 방역당국에게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입국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해외유입 방역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언제든지 급격한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요인 또한 많아졌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경각심을 잃지 말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시·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유흥시설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변경된 방역 조치사항을 홍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스 트라이크-아웃제(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 한편, 오늘(10.14.)부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 10개소에 전신자동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인천광역시는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조기 인지와 신속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는 내일(10.15.)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대출 심사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 이자로 대출한다.
  - 특히, 이번 3차 사업에서는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 대출'을 신설하였다.

## 2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이번 가을은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를 즐길 것을 권장한다.
- 부득이한 집단 여행의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참가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명단 전수 관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한다.

### <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방역수칙 사전 안내(마스크 착용, 고성방가 자제, 신체접촉 및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관리
-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에 대해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방역 인력 부족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력 추가 지원 예정

□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우선,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에 손소독제·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 한편,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탁자(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한다.

○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 10.17.(토) ~11.15.(일) 기간 중 국립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실시(공원별 16일간)

○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 또한,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 관광지 부근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리도록 한다.
- 이와 함께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대한 상황별·유형별 방역 수칙을 세밀히 마련하였다(붙임 1 참고).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여행·활동을 취소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휴게소 방문을 자제한다.
    - 또한, 2m(최소 1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 행위자제, 식당에서 한 방향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 가급적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 단체로 여행할 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개별 이동을 하거나 차량 내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와 산행 후 뒷풀이 등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수칙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방역 관계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등)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3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특허청(청장 김용래)로부터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204.4%로 대폭 증가하였다.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통계청) : ('19.1~8월) 86.6조 → ('20.1~8월) 101.8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19.1~8월) 4,194건 → ('20.1~8월) 12,767건

○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수사 : 상표 특별사법경찰 24명 // 판매제재(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지식 재산보호원 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126명

□ 먼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단속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 (現)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추가 (총 16명)

○ 아울러,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상표(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위조상품 의심제품 신고처: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 위조상품 감정의뢰 건수(건) : ('18) 485 →('19) 712 →('20.9) 666

-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지원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사례) 11번가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 브랜드관에 대한 위조품 200% 보상제 등

□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 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벌 부과('20.9.11,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네이버 등 20개 온라인사업자, LG전자 등 56개 상표권자, 한국소비자원, 정부(특허청·방심위 등)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14.5 출범)



#### 4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개막\* 이후, 수용인원의 10%(7.26.~), 30%(8.11.~) 수준으로 관중 입장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8월 16일부터는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왔다.

\* 주요 프로경기 개막일: 프로야구(5.5.) 프로축구(5.8.), 프로여자골프(5.14.), 프로남자골프(7.3.)

○ 지난 10월 12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과 함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었다.

- 유관중 전환 시점 등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종목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은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목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작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따라 경기장에서는 ▲입장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전 좌석 지정 좌석제 실시,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중석 내 물과 음료 외 취식 금지, ▲육성 응원 자제, ▲좌석 간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입장 가능 시간 연장 등을 통해 대규모 인원의 밀집 가능성도 낮출 계획이다.

-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오늘(10.14.)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부터는 관중 입장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유병채 체육국장은 “장기간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온 프로 구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중 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빈틈없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프로스포츠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7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04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3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319개소, ▲공중화장실 1,347개소 등 37개 분야 총 1만3157개소를 점검하였고, 발열체크 미준수 등 5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5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51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1. 가을철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 수칙  
2.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관리자 자가점검표 예시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1

## 가을철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 수칙

### '가족과 집 근처에서 가을 여유 즐기기'



#### ○ (기본방향) 단체 산행 자제 및 가족단위 활동 권고

- (야외)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및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

#### 1. 가족, 지인 등 소규모 여행을 할 경우

##### 1. 계획할 때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산행 및 야외활동 취소(여행 전 발열체크 등)
- ▶ 단체산행·야외모임 자제 및 가족단위 등 소규모로 일정은 최소화(당일 반일 등)
- ▶ 혼잡한 주말·휴일보다는 혼잡하지 않은 평일 이용
- ▶ 거주지 주변 한적한 공원·산책로 등 야외장소 이용
- ▶ 방역관리계획 사전 숙지
- ▶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권고
  -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2. 이동할 때

감염우려가 큰 대형버스 등 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규모 이동

- ① (역사터미널) ▲비대면 서비스(온라인예매, 모바일 체크인 등) 활용, ▲음식섭취는 지정된 장소 이용
- ② (차량 내부)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 ▲자주 환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
  - \* (통화) 기차 통로 이용, 개실 등에서 통화 자제,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작은 목소리로 통화
- ③ (휴게소) 가급적 방문 자제,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짧은 시간 머무르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 3. 산행 및 야외활동을 할 때

-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 \*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
- ▶ 단체 산행 자제 및 가족단위 등 소규모 활동
- ▶ 함성, 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가급적 자제
- ▶ 산행 중 음식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 자제(식사 전 손위생)
- ▶ 산행·야외활동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 자제

##### 4. 식사를 할 때

- ▶ 식당 방문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 활용 및 이동 시·식사 후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 섭취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거리 유지, 개인위생, 대화 자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5. 귀가 후

- ▶ 옷 세탁 및 목욕사위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 자제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 2. [불가피하게 단체여행을 할 경우]

### 1. 계획할 때

- ▶ 단체모임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예: 모임의 대표, 인솔자, 가이드, 버스기사 등)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산행 및 야외활동 취소(여행 전 발열체크 등)
- ▶ 혼잡한 주말·휴일보다는 혼잡하지 않은 평일 이용하여 일정은 최소화(당일, 반일 등)
- ▶ 방역관리계획 사전 숙지
- ▶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긴바지 착용 권고
- \*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2. 이동할 때

감염우려가 큰 대형버스 등 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 이동 권고

- ① (역사터미널) ▲비대면 서비스(온라인예매, 모바일 체크인 등) 활용, ▲음식섭취는 지정된 장소 이용
- ② (차량 내부) ▲한좌석 띄워 앉는 등 다른 사람과 거리유지,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 ▲자주 환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
- ③ (휴게소) 가급적 방문 자제,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짧은 시간 머무르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 3. 산행 및 야외활동을 할 때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

- ▶ 함성, 노래 등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위 가급적 자제
- ▶ 산행 중 음식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 자제(식사 전 손위생)
- ▶ 산행·야외활동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 자제

### 4. 식사를 할 때

- ▶ 대규모 식당 등을 이용한 단체 식사 자제
- ▶ 식당 방문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 활용 및 이동 시 · 식사 후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 섭취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거리 유지, 개인위생, 대화 자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5. 귀가 후

- ▶ 옷 세탁 및 목욕사위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 자제
-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 ▶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

#### ※ 방역관리자 업무 ※ (자가점검표 예시 「붙임2」)

- ▶ 참가자 명단 확보
- ▶ 방역관리 수칙 사전 숙지 및 참가자가 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 ▶ 단체모임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참가자에게 숙지 및 협조 안내
- ▶ 일정은 최소화하여 모임 계획(반일, 당일 등)
- ▶ 발열 및 호흡기증상 사전확인 및 유증상시 집에서 쉬도록 안내
- ▶ 모임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여부 확인(체온측정 등) 및 증상시 알리도록 안내
- ▶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함성, 노래, 큰소리로 대화 등 자제 유도
- ▶ 차량에서 음식 제공 및 섭취 자제 지도·관리
-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 ▶ 모임원이 코로나19 확진시 다른 모임원에게 안내

붙임2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관리자 자가점검표 예시

점검 내용 (√표로 체크)		확인
<b>1. 계획할 때</b>		
계획 단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였는가	
	참가자의 명단을 확보하였는가	
	방역관리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는가	
	일정은 1일 이내로 최소화하였는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안내하였는가	
<b>2. 이동할 때</b>		
공동	모임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여부 확인(체온측정 등) 및 증상시 알리도록 안내하였는가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차량내부	탑승 전 충분한 시간동안 차량 내부를 환기하고, 정차 및 이동 시 환기하도록 안내하였는가	
	한좌석 띄워 앉는 등 다른 사람과 좌석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차량 내부에서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휴게소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고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섭취하도록 안내하였는가	
<b>3. 산행 및 야외활동을 할 때</b>		
공동	모임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체온측정 등) 및 증상시 알리도록 안내하였는가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산행중	음식섭취 전 손위생하고 개별 섭취, 나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함성, 노래, 큰소리로 대화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산행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는 방문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안내하였는가	
<b>4. 식사를 할 때</b>		
식사안내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개별적으로 식사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식당	불가피하게 단체 식사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으로 식당을 예약하였는가	
	식당 내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먹거나 마시는 시간은 제외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은 개별적으로 덜어먹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을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좌석은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하고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화, 함성, 노래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식사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는 방문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안내하였는가	
<b>5. 귀가 후</b>		
귀가 시 안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도록 안내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붙임3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